

전남도 신임 실·국장 프로필

나승병 투자정책국장 강직하고 소신이 뚜렷해 후배들에게 신망이 두텁고 기획력이 뛰어나다. ▲합평(54) ▲육사 ▲공보관 ▲해양수산환경국장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순천시 부시장 ▲미래전략기획단장



서복남 관광문화국장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온화한 성품으로 적이 없다는 평을 듣는다. ▲보성(56) ▲전남대 경영학 석사 ▲감사관 ▲기획관 ▲영암 부군수 ▲F1 대회지원보좌관 ▲정책기획관



이인근 해양수산환경국장 자타가 공인하는 수산 전문가. 도청 근무 25년의 대부분을 수산관련 분야를 맡아 전문성을 확보한 점이 장점. ▲화순(51) ▲해양수산정책과장 ▲어업생산과장 ▲진도 부군수 ▲해양수산환경국장



주동식 F1대회지원본부장 업무 장악력과 추진력이 탁월하다. ▲여수(48) ▲서울대 행정학 석사 ▲기획관 ▲비서실장 ▲문화환경국장 ▲경제통상실장 ▲관광문화국장



임종문 광양만권본부장 육사출신으로는 특이하게 토목 전문가로 변신에 성공했다. ▲순천(57) ▲육사 ▲도로교통과장 ▲도청이전사업본부장 ▲광양청 행정개발본부장 ▲광양청 투자유치본부장



최우주 미래전략기획단장 국회 사무처 파견 경력 등을 바탕으로 전남의 전략산업 발굴을 위해 정부와의 가교 역할이 기대된다. ▲광주(56) ▲육사 ▲강진 부군수 ▲관광문화국장 ▲여수시 부시장 ▲국회사무처 파견



배양자 복지여성국장 탁월한 친화력과 업무 추진력으로 전남도청에서 '여성 1호' 기록을 연거푸 갈아치우고 있다. ▲광양(55) ▲전남대 행정학 석사 ▲여성정책과장 ▲기업지원과장 ▲공보관 ▲종합민원실장



주신호 정책기획관 공직에서는 드물게 공군사관학교 출신. 합리적이고 부드러운 평가. ▲무안(56) ▲공사 ▲목포시 도시국장 ▲법무담당관 ▲무안 부군수 ▲정책기획관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이승욱 종합민원실장 매끄러운 일처리로 선·후배간에 신망이 두텁다. ▲강진(53) ▲전남대 행정학 석사 ▲강진군 지역개발과장 ▲홍보계장 ▲노인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행복마을과장



민주 '노동법 파동' 추미애 중징계키로
민주당은 연말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한 자당 소속 추미애 국회의 환경노동위원장을 중징계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18일 오후 국회에서 신남균 위원장 주재로 윤리위원회를 열어 추 위원장의 행동은 중대한 해당행위라는 결론을 내리고 중징계를 지도부에 건의키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시장 입지자 대부분 시민배심원제 찬성

■ 민주 광역단체장 경선 시기·방법 촉박 3월초 경선 방침엔 미묘한 입장차

민주당 지도부의 3월 초 경선 방침에 대해 광주시장 후보군과 전남도지사 후보군은 찬반으로 갈렸다. 광주시장 후보 선정에 도입하려고 하는 시민배심원제에 대해서도 미묘한 입장차이를 보였다.

◇경선 시기=광주일보가 19일 민주당 광주광역시장 후보군과 전남도지사 후보군을 상대로 전화 조사를 한 결과,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이 3월 초·중순에 전남지역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경선을 하기로 계획한 데 대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 일부 후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3월 말 또는 4월 초 경선을 주장했다.

박광태 광주시장 측은 "경선 시기는 중요하지 않다"며 "당 방침을 존중하며 따르겠다"고 답했다. 강운태 의원은 "당 방침이 적절한 것 같다"며 찬성의 뜻을 표시했다.

반면 이용섭 의원은 "경선 시기가 좀 이른 것 같다", 전남김길 광산구청장은 "3월 초는 너무 빠르다. 늦어질수록 유리하지만 3월 말이 합리적이다", 정동채 전 문공부 장관 측은 "3월 말~4월 초가 합리적이다"고 각각

주장했다.

또 양형일 전 의원은 "경선 시기는 개이지 않는다. 하지만, 광주시민이 후보들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4월경 경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각각 답했다.

전남지사 후보군 중에서는 박준영 전남지사와 주승용 의원은 당 방침에 찬성했지만 이석형 전 합평군수는 3월 말~4월 초 경선을 주장했다.

박 지사 측은 "경선 시기에 대해서는 당 입장을 존중한다"며 "중요한 것은 시기가 아니라 공정성과 저비용이 보장되는 경선 방법"이라고 밝혔다.

주승용 의원은 "하루라도 늦춰지는 것이 유리하지만 당의 경선 일정을 감안하면 3월 중순 경선이 합리적이다"고 답했다.

반면, 이 전 군수는 "후보를 도민들이 보다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3월 말~4월 초순 경선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최근 당 지도부의 잇단 광주광역시장 후보 공천 과정에서 시민배심원제 도입 발언과 관련, 대부분 수긍하는 편이다. 하지만, 여론조사 지지도에 따라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박광태 시장 측은 "찬성한다. 누가 민주화에 이바지하고 광주시의 발전에 기여했는지 시민배심원단의 검증이 거처면 자신 있다"며 환영 입장을 보였다. 또 이용섭 의원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후보들을 집중 검증한 후 국민경선을 치르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후 시민공천배심원제 평가 점수를 국민참여경선 결과와 함께

반영,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고, 전남 김길 광산구청장도 "공정성을 보장하고 폐해를 막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시민배심원제는 당과 광주시의 발전을 위해 적절한 공천제도라고 생각한다"고 각각 찬성 입장을 보였다.

양형일 전 의원은 "시민배심원제는 후보에 대한 검증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도입을 찬성한다"고, 정동채 의원은 "여러 공천제도의 폐해를 막고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제도"라고 각각 답했다.

강운태 의원은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더욱 많은 당원과 시민이 참여하는 방안을 도입, 민심과 당심이 일치하는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나주시의회 예산삭감 후폭풍 나주 농민회 등 나주지역 20개 시민사회단체 회원·주민 등 800여 명은 19일 나주문예회관에서 나주시의회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에 대해 규탄 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서 시민단체 회원들과 시의회 옹호 주민들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나주=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방송진출 신문사 부수·재정 공개 의무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앞으로 방송법에 진출하려는 신문사는 발행 부수와 재무구조를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 지상파나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에 진입하려는 신문사는 총 가구 수에서 특정 일간신문의 연평균 유료구독 가구 수가 차지하는 비율인 구독률 20% 이내 기준을 충족해야만 방송법 진출 자격을 얻게 된다.

정부는 1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과천 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에 따라 방송법 진출을 희망하는 신문사들은 지정된 인준기관을 통한 전체 발행 부수와 유가판매 부수 등 자료와 함께 재무제표 등 전년도 회계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방통위는 이를 접수한 뒤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정부는 또한 스포츠 경기에 한해 그래픽을 활용한 가상광고를 도입하고, 프로그램 내에서 이뤄지는 간접광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날 통과된 시행령들은 오는 25일께 관보에 게재돼 공포된 이후 효력을 얻는다.
/연광뉴스

정가 라운지

오늘 시민배심원제 광주서 설명회

○민주당이 6·2 지방선거 경선방식으로 검토하고 있는 시민배심원제에 대해 호남지역 여론 청취에 나선다.

민주당 혁신과 통합위원회는 20일 오전 11시 광주 서구 CMB 컨벤션센터에서 민주당 공천제도 혁신 안 호남지역 설명회를 갖는다.

역할을 못하고 있다"면서 "조선대의 설립이념과 지역발전이라는 목적에 맞고, 지역의 일꾼을 전문적으로 육성할 시립대학이 없기 때문에 조선대의 시립대학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평오 북구청장 출마

○남평오(49)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교육원장은 19일 "영혼이 없는 관료주의의 적 리더십을 깨뜨리고 변화와 도약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북구를 만들기 위해 북구청장에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남 원장은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민선 4기 북구행정은 자치가 실종된, 무사안일의 행정으로 후퇴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조선대, 시립대 전환을"

○진보신당 윤난실 광주시장 후보는 19일 재단 운영 문제로 내분을 겪는 조선대를 광주 시립대학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윤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조선대는 재단 문제로 지역을 대표하는 사회재단으로서 제



고흥 출신인 남 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 정책보좌관, 김근태 전 당의장 특보, 비전 한반도포럼 공동대표 등을 맡았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합격을 원한다면 주소창에 "한빛고시학원"만 쳐보세요

가장 많은 수강생! 최다 합격자 배출! 최고의 시설! 최강의 강사진! 압도적 1위 한빛!

7월 9일 2월 1일 시작반 **9월 9일 2월 1일 시작반**

시대생 시립대편입면허시험 **임용고시복교육해정지**

합격하고 싶다면 한빛고시학원 통하라!! 학원 선택이 합격을 결정한다!!

시대생을 위한 교육행정직 합격특강 **9월 문제풀이** **소방직**

마감유의 **한빛고시학원** **광주 북구청앞**

234-0234